

# 주민이 만든 농촌축제 주목

### 임실군, 동네기 베통절 기념 내 고향이 최고야 내일 개막 오수면 동네리 일원서 한마당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주민이 기획하고 준비한 농촌 축제 '동네기 베통절 내 고향이 최고야'가 오는 9월 2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동네기'마을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베통절을 맞아 오수면 동네리 일원(이음재 고개)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농촌축제의종류 농촌축제 공로 사업에 선정돼 어느 때보다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풍성하게 준비했다.

마을의 안목을 기르기 위한 기(氣)세움 고사, 대형 마을놀이 그리기 체험, 전통 용가놀이 재연, 마을 어르신 대접공연 등이 진행된다.

순지와 함께하는 세대와함께, 임포꾸꾸꾸, 주민장기 자랑 등 관객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주민이 기획하고 준비한 농촌 축제 '동네기 베통절 내 고향이 최고야'가 오는 2일 개막하는 가운데 시민은 지난해 축제의 한 장면을 담았다.

특히 지난 1988년 제작돼 현재까지 장승원 같이 40여의 커다란 황동이 그려진 마을기와 그 기를 활용한 용가놀이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원래 잔치음식이 모든 관객자에게 중심으로 제공되며 뒤편이 행사 '대접술'을 관으로 마을 내린다. 장곡도 민속자료 12호로 지정된 '이음재 고개'는 5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어 축제를 즐기며 전통 가락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제추진위원회는 "동네기 베통절은 문화유산과 전통놀이문화가 집결돼 더욱 의미가 있다"며 "동시에 주민화합의 정인 만큼 주민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즐겁고 최고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전영명 기자

# 황숙주 순창군수, 지역발전 성과 빛났다

###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수상 장류산업 혁신·농업 발전 등 미래성장기반 조성 인정 받아



실제 황군수는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100억, 광산이 발효마을 99억 국가예산을 확보해 순창이 세계속의 발효산업 중심으로 커 갈 수 있는 기초를 탄탄히 했다.

올해는 전통발효마을을 산업화 지원사업 구축사업 100억 확보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기존 장류제품을 소스 산업화로 외연을 확대하는 혁신적 전략을 통해 450억 세계소스시장 진출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권역친환경농업단지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친환경농업을 이끌 기반을 든든히 해 순창을 친환경농업

연구와 농작물 생산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고 있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진강 향가오보행공공과 장군목 주변 용골산 치유의 숲, 직상면 심진강 유래전원농사마을 추진에 관광객 500만 유자에 도전하고 있는 관광지원 다변화 전략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작은영화관, 육천미술관, 일품공원 조성 등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순창을 전국 근거리 문화지구 10위안에 올려 놓은 성과 또한 큰 공로다.

황숙주 군수는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공직자들과 함께 앞만 보고 쫓아온 결과로 인정 받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순창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순창군, 전국 출산율 2위 비결은?

### 출산지원금 대폭 올리고 지원 대상 기준은 내려... 입체적 출산정책 효과 특목

통계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2016 출생등록계'에서 순창군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2.02명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해 군의 입체적인 출산정책이 특목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한다. 국가별 출산율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 2.42명에 이어 2.02명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합계출산율이 2명을 넘는 곳은 전국에서 순창과 전남 뿐이다.

특히 군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14명에서 2016년 1.87, 지난해 2.02명으로 나타내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승이 증가 속도로 보면 2014년 1.8명 2015년 1.87명, 지난해 2.02명으로 증가했다.

군은 이같은 출산율 증가의 원인을 단순 자금 위주의 출산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입체적 출산 지원 정책에서 찾고 있다.

순창군은 우선 당국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젊은 부부들을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또 딱딱한 인구유입을 위해 지난해 상 기본도 완화했다. 첫째아이는 300만원 둘째는 400만원, 셋째는 1,000만원, 넷째이상은 1,50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 부부를 위한 기초 검사비도 지원해 출산율 유도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출산과 함께 입체적 정책을 통해 양육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 군은 시책사업으로 출산가정에 신보살방아 건강관리사 이용료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출생 축하 기념품 지원, 돌맞이 사업 지원, 지역신문과 함께하는 출생 축하행사 보도, 공공장소 태깅수유방 설치 등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 낳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 /순창=이영원 기자

# 지역 소식



# '사회 품질 직기 수확이 결정'

### 임실군, 현장컨설팅 추진 최선

임실군은 추석을 맞아 수확기가 다가올 때를 맞아 고공질 시차생산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추석에 주로 출하 되는 품종은 국내에서 육성된 최초의 품종으로 추사시감 수수에 특화된 품종이다.

크기와 당도, 식감이 우수하나 저장성이 30일 정도로 짧고 추사시감 가격 하락이 뚜렷해 수확을 서두르는 경우 품질이 저하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수확을 할 경우 착색이 고르지 않고 무게와 당도가 부족해 상품성이 저하된다. 또한 인위적인 착색 작업이 많아서 많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나무의 겨울나기를 힘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공 착색을 위해 수확 2주전 반사필름을 설치하고 일찍이 작업은 1~2차례 나눠 재향적으로 실시한다.

당도 증진을 위해 출하 전 20일경부터 수분량을 순차적으로 줄이고 후기 병해충 방제는 농약(정사용)을 기본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센터 관계자는 "사과의 생육상태 및 병 발생과 대책, 품종의 착색 관리 요령 등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인접하고 맛있는 사과 수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영명 기자

# 가을은 독서의 계절... 프로그램 풍성

### 남원시, 작품전시·체험 등 연령별 맞춤형 행사 마련

장독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남원시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문화 생활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원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도서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민들은 도서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어디서나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다.

또 사립도서관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해 시민들이 보다 편안한 시간에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각 연령 및 계층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9월 한 달 동안 마취와 및 저학년 아동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우리들의 작품전시'를 비롯하여 '그림책과 놀아요', '역사인을 따라잡기' 등 6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상록도 서두르고 있다.

도동동 504-1번지 일대에 있고 있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매년 11월 독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총면적 10여



평과 사비 47억 2,000만원을 들여 부지 860㎡에 연면적 1,456㎡의 지상 3층 규모이다. 실시일계를 거쳐 12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곳에는 지도실을 비롯해 감의실, 동아리실, 전시공간, 장난감방, 놀이·체험공간, 휴게공간, 감성정원,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개관되면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소풍과 나눔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남원시 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2곳으로, 7월말 현재 사립도서관 이용자 66,100명이 66,280명의 도서를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유영철 기자

# 남원보건소, E형간염 예방 당부

E형간염을 예방을 위해 남원보건소가 수인성·식물매개감염병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임산부, 간질환자, 장기이식환자와 같은 면역 저하자 등은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형간염은 E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급성 간염으로,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오염된 채지, 사슴을 육류를 덜 익혀 섭취할 경우에 감염되며, 15~60일(평균 40일) 잠복기를 지나서 피로, 발열,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발현한 후 황달, 진한색 소변, 회색 변 등의 증상을 보이고, 건강한 성인은 대부분 자연 회복되어 재발률은 약 3% 정도이다.

E형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채지, 사슴 등 가공식품은 충분히 익혀먹고, 유행지역의 레저여행시 안전한 식수와 충분한 익힌 음식을 먹고, 화장실 다녀와서, 기저귀 갈 후, 음식 조리장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를 실천해야 한다. /남원=유영철 기자

#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 서바이벌

레프팅/카약  
스키/보드

## ATV / 버기카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궁로 312(송포리 485-2)

**대표 약품**

입지인 스키 및 원투산수출용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국제비치 지역 위탁
한국 스키 선수과 대학(교재)	오공지치 유망 지역 위탁
국제대회 디스 경기 및 무승	국립대학 2010년 지역 위탁
동계스포츠 국가대표 훈련	수상 인양구급요원 지역 위탁
국제대회 프리 연습	인근지역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INEL) 스키 2년	